



■ 발 표 1.

# 귀촌·귀농인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김 종 수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 귀촌귀농인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충남지역의 귀촌귀농 정착 형태 분석

제3장 귀촌귀농인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김종수·유학열  
(충남발전연구원)

## 제1장 서론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농촌지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의 농촌<sup>12)</sup>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10여 년 간의 귀농·귀촌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생계를 위한 형태의 귀농이 많았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30~40대를 중심으로 한 농업형 및 생태지향형 귀농이 주류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최근까지는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붐세대<sup>13)</sup>의 은퇴 후 농촌(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도 편승하여 다양한 귀농·귀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직업과 나이,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찾아 생계 수단과 주거 공간을 농촌으로 옮기려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농촌지역의 과소화 해소 및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의 활용을 통해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sup>14)</sup>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긍정적 영향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귀촌귀농인들을 농촌 지역사회에 포섭되고 동화되어 능동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잠재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더 큰 역할이 필요하며, 그들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실행 집단으로 조직화한다는 관점에서 귀촌·귀농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정섭외, 2012).

증가하고 있는 귀촌·귀농인력을 농촌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에서 귀촌·귀농인들의 유입을 단순히 물리적 이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 기술, 네트워크 등을 활용 침체된 농촌지역사회에 활기를 넣어 줄 방안과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귀촌·귀농인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새로운 시선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여러 주체와 함께 사회적경제를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충남지역으로 유입된 귀촌·귀농인들은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고령화, 과소화 등에 의해 침체되어 있는 농촌을 현실을 되짚어 보면서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귀촌·귀농인들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논하고자한다. 또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귀촌·귀농인들에 의한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농촌지역의 정의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상 면(面)지역 이하의 지역으로 설정함

13) 베이붐세대란 전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명이 여기에 해당됨

14) 성주인(2012)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어촌 주민이 바라본 귀촌귀농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마을 인구와 활력유지(31%), 영농 종사 인력확보(19%), 지역을 위해 일할 인재 확보(12%)로 人的인 측면에서 농촌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장 충남지역의 귀촌귀농 정착 형태<sup>15)</sup>

### 1. 조사개요

조사는 2010년 7월,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규모는 서천군 120명, 홍성군 40명, 금산군 30명, 청양군 22명 총 212명이다. 212명 중 서천군이 47부, 홍성군 16부, 금산군 9부, 청양군 6부 총 7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유효회답은 서천군 39명(31.9%), 홍성군 16명(40.0%), 금산군 9명(30.0%), 청양군 6명(27.3%) 합계 70명(유효회답률 33.0%)이다.

### 2. 귀촌귀농자의 일반적 특징

#### 1) 성별 및 연령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57명(81.4%) 여성이 13명(18.6%)로 나타났다.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설문조사의 표본이 대부분 세대주였기 때문이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32.9%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8.6%, 40대 21.4%, 30대 14.3% 순으로 나타났다. 5~60대의 중장년이 전체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금산군의 경우 60대 이상이 88.9%로 고령층 귀농·귀촌인이 많았으며 반면 홍성군은 3~40대가 75.0%를 차지하고 있어 홍성군의 경우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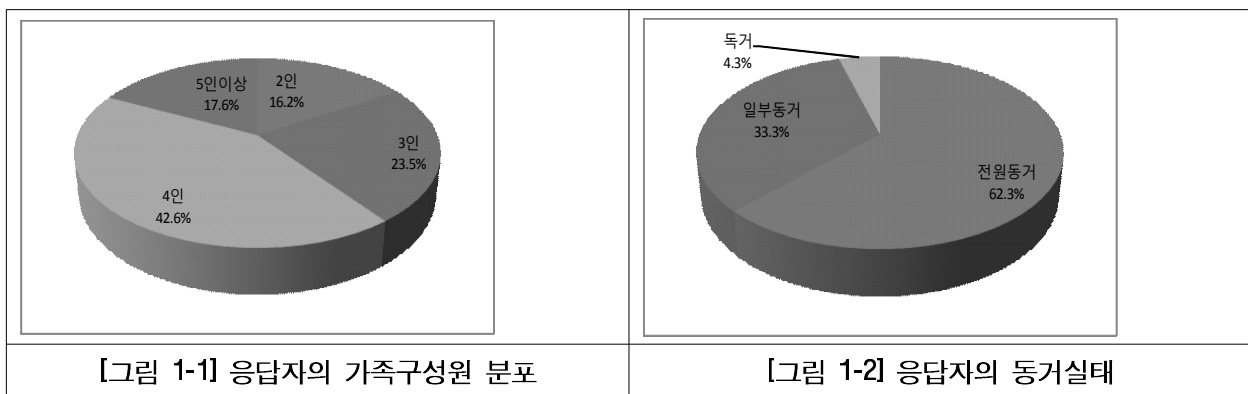
#### 2) 출생지 및 귀촌·귀농전 농촌생활 경험

응답자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54.0%, 농촌지역 46.0%로 도시지역 출신자가 약간 많았다. 귀농·귀촌전의 농촌생활 경험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다'가 63.9%로 '경험이 있다' 36.1%보다 높게 나타나 3명 가운데 1명만이 귀농·귀촌 전에 농촌생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족구성원 및 가족과의 동거 실태

가족구성원을 살펴보면 4인 가족이 42.6%로 가장 많았으며 3인 가족 23.5%, 5인 가족 이상이 17.6%, 2인 가족 16.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족과의 동거 실태는 62.3%가 구성원 전원이 함께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동거를 하고 있다가 33.3%, 독거(독신)의 경우 4.3%로 약 40%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본 장은 유학열(2010) 「충남의 귀촌귀농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충남발전연구원 기본과제를 토대로 필자가 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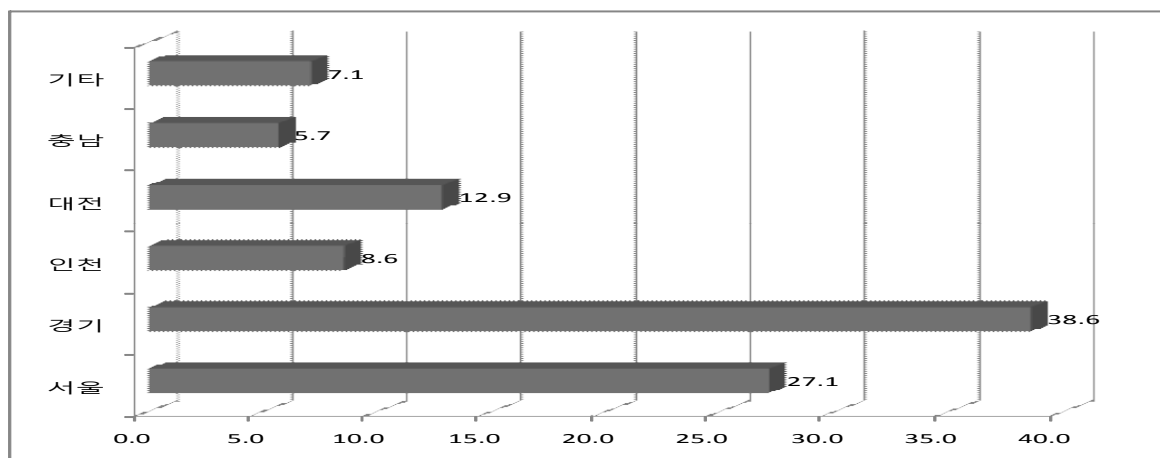
#### 4) 직업

농촌으로 이주하기 직업으로는 회사원(공무원 포함)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소도매업, 운수업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예술인, 방송인, 건축가 등 전문직에 종사했던 자도 적지 않다(8.6%)는 점이다.

한편, 이주의 직업으로는 농업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홍성군의 경우 68.8%가 농업을 직업으로 갖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직업이 없는 무직(일용직 포함)의 경우도 20.0%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살린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5) 귀촌·귀농전 거주지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하기 직전의 거주지(전출지)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7.1%, 대전 12.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천 8.6%, 충남 5.7%, 기타 7.1%로 나타나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지역에서의 전입이 74.3%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천군의 경우 81.5%, 홍성군의 경우 87.5%가 수도권지역으로 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산군의 경우는 인접한 대전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5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1-3] 응답자의 이주 전 주소지 분포(%)

### 3. 귀촌·귀농의 실태 파악

#### 1) 귀촌·귀농의 목적

귀농·귀촌의 목적을 보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인간다운 삶을 위해) 때문이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농촌생활이 좋아서 22.1%, 직장 은퇴 후 노후휴양을 위해 13.2%,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11.8%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하는 경우는 4.4%로 매우 낮았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와 농촌생활에 대한 동경 등 농촌 지역을 지향하는 응답이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경향은 과거 보다 확연히 낮아졌으며 이것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에 의해 귀농·귀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 귀촌·귀농지 선택이유(복수응답)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해 온 이유를 살펴보면,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님이 거주(고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6%로 많았다. 그 외 농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5.0%, 지인의 소개 10.0%, 마을 사람(귀농·귀촌인 포함)들이 좋아서 10.0% 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고향이라는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41.3%로 매우 높았다. 그 외 농업조건이 좋아서(13.9%), 지인의 소개(11.6%), 대도시와의 접근성 유리(9.3%)순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 경우 농업조건이 좋아서가 42.9%, 젊은 귀농인이 많아서가 28.6%로 나타나 서천군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금산군, 청양군의 경우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3)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1~2년 26.8%, 4년 이상이 23.2%, 2~3년 14.3%로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60%가 2년 이하로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현재의 가계소득

가계소득 구조를 보면 응답자의 가계소득 가운데 농업소득 비율이 11~50%인 경우가 41.5%로 가장 많이 차지 하였고, 10% 이하인 경우도 33.9%로 나타나, 귀농·귀촌인의 대부분이 농외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업농에 가까운 농업소득 비율이 90% 이상의 경우는 13.2%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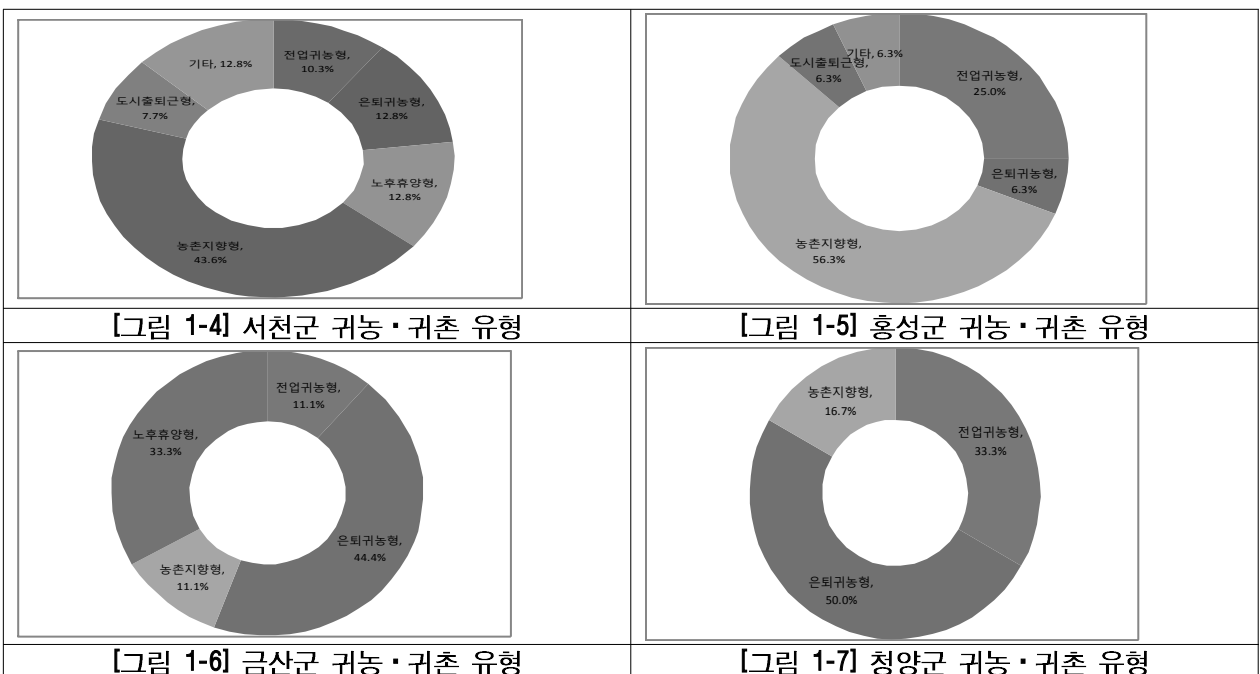
#### 5) 정착 후 애로사항(복수응답)

귀농·귀촌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정착자금, 영농자금, 수입의 불안정 등 경제적 어려움(48.1%)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농업기술, 농산물 유통·마케팅에 어려움 13.5%, 교통문

제 11.5%로 나타났다. 문화 및 교육 인프라의 부족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4. 귀촌·귀농 유형별 특징

귀농·귀촌을 하게 된 궁극적 목적과 생활 행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응답자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촌지향형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은퇴귀농형 18.6%, 전업귀농형 15.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서천군의 경우 도시출퇴근형이 평균 보다 높았으며, 홍성군의 경우는 전업귀농형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또한 금산군과 청양군의 경우는 은퇴귀농형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전업귀농형

전업귀농형은 본격적인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귀농한 비율은 15.7%(서천 10.3%, 홍성 25.0%, 금산 11.1%, 청양 33.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영농만으로 가계소득을 얻으려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은 과거 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가운데 농업소득 비율은 평균 74.0%로 대부분의 수입원은 농업활동을 통해 얻고 있으며, 영농규모는 약 1.54ha로 비교적 크며 과반수 이상이 경종(논농사+밭농사)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지의 소유 형태를 보면 자가소유 36.8%, 임차 63.2%로 임차비율이 높다. 또한 전업귀농의 형태로 이주한 자의 연령대는 3~40대가 63.6%, 50대가 27.3%, 60대 이상이 9.1%로 비교적 젊은 층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2) 은퇴귀농형

은퇴귀농형은 도시에서 직장을 은퇴 또는 퇴직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겸업 형태의 영농을 하고 있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귀농한 비율은 18.6%(서천 12.8%, 홍성 6.3%), 금산 44.4%, 청양 50.0%)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소득비율이 평균 31.3%로 가계소득의 약 2/3를 농외소득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농규모는 평균 0.74ha로 전업귀농형에 절반 수준으로 작으며, 영농형태도 시설원예, 축산, 가공형태가 많고 경종형태가 적다는 것도 전업귀농형과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 형태를 보면 자가소유 비율이 61.6%로 전업귀농형의 36.8%보다 높다. 이것은 영농규모가 작아 자가소유 비율이 높은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 유형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며 60대 이상 비율이 69.2%를 차지 전술의 전업귀농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농촌지향형

농촌지향형은 농촌생활·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형태이다.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40.0%(서천 43.6%, 홍성 56.3%, 금산 11.1%, 청양 16.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4~50대가 66.6%를 점유 비교적 젊은 층이 많으며 출생지가 도시지역이 경우가 77.7%로 전체 유형 평균 53.9% 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귀촌 준비기간을 보면 65.4%가 2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소득 비율이 25.7%에 불과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노후휴양형

노후휴양형은 은퇴 후 농촌에서 휴양 또는 건강을 위해 요양할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하는 형태이다. 전체 유형 가운데 11.4%(서천 12.8%, 금산 33.3%)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홍성군과 청양군의 경우는 이러한 유형의 응답자가 없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전체의 85.7%를 차지하며, 출생지를 보면 71.4%가 농촌지역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농촌지역 출신 비율이 높다.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로 귀촌한 경우 대부분이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본인 혼자 또는 가족 일부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60.0%가 영농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균 영농규모가 0.33ha로 매우 작으며 대부분 소규모의 시설원예 및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 5) 도시출퇴근형

도시출퇴근형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체 유형 가운데 5.7%(서천 7.7%, 홍성 6.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4~50대로 비교적 젊은 층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형태를 보면 절반 정도가 상시 농촌 지역에 거주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형태라 생각할 수 있다.

## 제3장 귀촌귀농인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 1. 귀촌귀농인의 사회적 역할

#### 1) 새로운 지역리더로서의 역할

최근 농촌개발정책의 패러다임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에서 지역 주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Bottom-up approach)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당초의 의도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분명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지역단위의 인적역량 부족 및 지역리더의 부재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에 있어서도 체험마을의 각종 시설관리는 물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마을 내에서 마케팅, 경영, 회계, 시설계획 등 체험마을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듯 농촌지역에서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역(마을)의 건전한 경영과 체험마을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귀촌귀농인으로부터 충분히 수혈 받을 수 있다.

#### 2) 새로운 농어촌경제의 주체로서의 역할

최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및 서비스까지 융복합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업 6차산업화<sup>16)</sup>가 주목을 받고 있다.

농어촌 지역으로 신규 유입되는 귀촌·귀농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 기술과 폭넓은 대내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농산물의 가공, 유통은 물론 농어촌관광 등 농어촌경제의 다각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농어업 6차산업화를 통해 농가소득의 향상,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침체된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경제주체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지역공동체(농어촌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가 역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화 프로그램, 교육·평생학습, 영유아 보육, 노인복지, 보건 의료 등의 부문에 귀촌·귀농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귀촌인 가운데 전직 교사, 예술가, 음악가, 기술자들이 제법 많으며 그 분들에 의해 농어촌 의료봉사활동, 마을 음악회, 공부방 운영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듯 농어촌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조직(비영리단체 등)을 구성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열 수 있다.

16) 농어업 6차산업화란 농업은 1차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2차산업 및 3차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업을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1차×2차×3차=6차)를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여성, 고령자에게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업 활동을 의미함(今村奈良臣)

## 2. 귀촌귀농인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 1) 적절한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와 연결하여 귀촌귀농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떻게 지속가능할 것인가 하는 실존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나타난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의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간병, 가사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쉬운(정부로부터 인증을 받기 쉬운) 사업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농촌은 도시와 성격이 다르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문제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는 귀촌귀농인이 이러한 사회적 기회를 찾기에는 지역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지역 내의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필요를 잘 정리하여 귀촌귀농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것이 부족하고 따라서 어떠한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지역사회 자원의 분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역 내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은 어디에 숨어있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둘째, 말 그대로 적절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국책사업의 문제는 사람과 시스템이 아니라 '창고' 등 물리적인 인프라를 남기는데 있다. 이제 귀촌귀농인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물리적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주민들이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형성된 물리적 인프라를 귀촌귀농인들이 가진 사업적 아이디어를 통해 살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러한 인프라들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소중한 거점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2) 귀촌귀농인을 사회적경제 주체로 만들기

농촌에는 많은 기획과 자구책이 논의된다. 현재 충남도에서도 3농 혁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농어업 발전 없이는 충남 발전도 어렵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다. 3농혁신은 농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힘든 정책이다. 이제까지 농촌의 기획 또한 그랬다. 기존의 기획과 자구책을 잘 추적해보면 2년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농촌에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농촌 마을에는 어르신들 외에는 경작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나마 젊은 40~50대 농민들 몇 명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지금 농촌 마을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가 없고, 생기가 없어서 사람이 오지 않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이진천, 2006)

왜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까? 농촌에서의 삶이 그만큼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농촌에서는 도시에서와 같은 욕망 구조로는 살수 없고, 물질적으로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1년에 500만원, 1,000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이들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꿈꾸는지렁이들의 모임, 2005).

결국 사람이 사업을 만들고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농촌에서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준다면 농촌에서도 지속가능한 삶의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귀촌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정책도 결국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사람의 재생산 구조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생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아카데미에 귀농인 전문과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귀농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귀촌귀농인들을 인터뷰한 자료들을 보면 가장 문제가 기존의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 고립되어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귀농인 전문과정에서는 이러한 주민들과의 갈등해결방안을 비롯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의 의미, 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적정기술 활용방안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은 이렇게 교육된 귀촌귀농인들이 마을공동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귀촌귀농인들은 각자의 삶의 궤적에 따라 지역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적성과 재능의 차이가 다르다. 이러한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역량강화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찾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은퇴자들의 경우 자신이 평생 동안 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컨설팅을 하는 프로포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의 취업이 녹록치 않아 지역에서 다시 살고자 내려온 청년 귀촌자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천군의 문화적 사회적기업인 '흔'의 경우 대표 및 단원들이 서천출신인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와 사회적기업을 창업한 경우이다. 이들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공연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취약계층과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지역민과 함께 지역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 3)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및 자원활용

쉽게 귀촌귀농인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한다고 생각해보자. 농촌형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촌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너무나 많다. 특히 현재의 농촌은 역사를 통해 도시로부터의 수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의 상권을 죽이고 있는 대형마트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간다. 대형마트는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서울로 가져다준다. 다시 말해 예전의 농촌마을은 생산과 함께 생산물의 분배와 소비가 결합된 공간이었지만 이제 생산만 이루어질 뿐 생산의 분배와 소비는 일어나지 않는 공간이 되어 버린 것이다. 더구나 농촌사회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부족하여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가용한 자원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업자본이 진정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려 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촌은 단지 돈을 벌어가는 대상일 뿐이다.

귀촌귀농인들은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지역자원의 혼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자원을 혼합하여 기존의 기업의 방식과는 다르게 경영을 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가 힘을 모아 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이렇게 개발된 재화와 서비스를 지역 사회 안에서 서로 구매하도록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 내 순환과 공생이 사회적기업의 생존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인터뷰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의 구성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윤리적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가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누군가 무슨 일을 도모한다고 하면 힘들이 모아집니다. 그건 시장에 모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정서이겠죠. 예를 들어 장애인 떡 방앗간을 자활과 연계해서 가려고 하는데 1억 가까운 돈을 용자받아 방앗간을 내려고 할 때 믿는 구석이라는 것은 잘 만들어서 생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팔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한살림이나 원주생협도 중앙에서 떡을 받는 게 아니라 지역 장애인들이 생산한다고 하면 그걸 먼저 받겠다. 조합원들 중에도 집안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떡을 하시겠다고 하고, 장례식장에서도 만드신다고 하면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어쨌든 건강하게 일하는 조직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정서가 이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윤리적 소비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구요. 취약계층 할머니 수술비를 모아야 한다고 하면 기부해주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큰돈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색한데 소시민들은 시민사회 안의 공적부조나 사회부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모이구요. 진료비를 대납해주겠다던가. 이런 건 이야기 하면 상당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윤리적 소비가 형성될 수 있는, 물론 제도화 되었을 때의 시너지 효과까지 갖는 건 아니겠지만, '여건이 된다' 라고 하겠습니다<sup>17)</sup>.

귀촌귀농인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융화되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따라서 귀촌귀농인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 정책도 이러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민과 귀촌귀농인이 혼합된 팀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구성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신규 취농자들이 겪는 진입장애 해소의 실마리는 경제적 자본 요인보다 사회 연결망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귀농자들이 농지나 정책자금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갖고 있는 기득권자(마을이장, 농협 직원, 군청 직원 등)와 소통하지 않고서는 자본 관련 장애요인을 해소하기가 힘들고, 농촌의 생산자 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유통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혜택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농촌 지역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영농 관련 조직과의 연계가 없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귀농자 또는 귀촌자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애로사항 중 하나로서 '지역사회에 동화'되기 어렵다는 점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지적

17) 김종수(2009).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에서 인용

되는 것 또한 경제적 유인책이 귀농·귀촌 정책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김정섭, 2009: 541).

이렇게 귀촌귀농인들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운영할 때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단순히 귀촌귀농인끼리만 잘 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연대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단위농협, 신협, 시민사회단체, 기존의 농업관련 조직 등이 연대할 수 있는 구조화된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의 중심에는 지역주민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존이 개별적인 기업의 활동으로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절박한 해법이다. 단순히 개별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야만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4) 연대의 매개체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등 사회통합의 의미를 가진다. 귀촌귀농인들은 사회적기업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사회적기업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줌으로써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도시생활에서 지치거나 생계가 막막해 고향을 찾는 귀농인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은 귀촌귀농인과 지역주민, 귀촌귀농인들과의 연대에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남 서천에도 충남형사회적기업 '서천군 귀농인협의회'가 많은 회원들을 결집하여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공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대상이 이에 그친다면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가지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방식만으론 세대단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이 지속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촌귀농인들과 농촌의 청년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최근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때 지역사회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소셜 벤처대회 등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에 도전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무적인 것은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장 신선할 때 우리 지역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로컬푸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고 이러한 운동에 점차 많은 청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 < 참 고 문 헌 >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6
- 김종수, (2009).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 (2005). "귀농 여성이 개척하는 새로운 자유의 영역". 『환경과 생명』. 제44호 여름호
- 유학열외(2010), "충남 귀농귀촌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이진천,(2006)."귀농 자체가 대안이고 운동이고 희망이다". 『환경과생명』 통권 50호